

# 코로나19 고령환자 증가세 뚜렷

###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2일째 100명대 유지 고령환자 38.1%... 직전 2주 대비 4.8% 상승

최근 들어 코로나19 고령환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인 양상이지만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 확진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증가하면 할수록 방역체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재확산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사업 설명회,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부터 12일째 100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전의 200~400명대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고령 환자 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부

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38.1%로, 직전 2주(8.16~29)간의 33.3%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무증상·경증환자가 많은 20~30대 비중은 최근 2주간 22.1%로, 직전(23.1%)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방역당국이 60대 이상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령일수록 중증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위중·중증환자 중 대부분은 60대 이상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위중·중증환자 157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137명으로, 87.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명률 역시 고령일수록 높아진다. 50대 이하에서는 0.5% 미만이지만 60대 1.21%, 70대 6.52%, 80

대 이상 20.37%로 급격히 올라간다. 이처럼 위중·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는 이달에만 벌써 39명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할 때면 과제로 제시하면서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고령층을 접촉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금지도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는 입·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시 절 종사자들은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모임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연합뉴스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국무위원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교통상부 장관(왼쪽부터)이 각 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이전 완료 대전 다음으로 많아... 일자리 43명 증가

지난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 총 10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하고, 43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지난해 1차·2차로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의 2020년 7월말 기준 200개 특구사업자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전과 비교해 1년간 662명

(15.9%)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662명)의 72.7%를 차지했고, 이 중 모바일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320명, 48.3%)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 이뤄진 1차 특구지정

에는 부산 등 7개 지역이 지정됐고, 11월 2차 특구지정에는 제주 등 7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다.

2차 특구에 지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 전북 98명, 울산 63명, 대전 51명, 광주 48명, 경남 35명, 전남 29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 성과를 보면, 2차 특구로 지정된 7개 특구에 총 42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특구 지역 7개 지역 중 대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위성곤 의원,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사진)은 15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그동안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필요농가에 지원하면서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농식품부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

켜 책정하고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임대가능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동일 기준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편성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위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자체조례를 근거로 농가 피해 방지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같은 대응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며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 송재호 의원, 전자입법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률안의 전자입법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서귀포·사진)은 15일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참

여정부에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로 지난해 전자입법이 처음 사용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상황으로 인해 전자입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

정이 없고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 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입법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여전하다. 국회 내 전자 입법을 활성화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 국내 기업 매출 2015년 이후 최악 기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4~6월) 국내 기업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이상 줄었다.

2015년 한국은행의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나쁜 성적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 분석 통계를 보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외형 축소로, 감소폭이 1분기(-1.9%)의 5배에 이르렀다.

매출액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분기별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액은 제조업(-1.9%→-12.7%)과 비제조업(-1.9%→-6.5%) 모두 1분기 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석유화학(-5.2%→-26.8%)은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운송장비(-3.5%→-17.3%)는 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매출액 감소 폭이 커졌다. 도소매업(-2.7%→-6.9%)은 무역 감소로, 운수업(-1.8%→-15.8%)은 항공사 여객

수송과 항공화물 수송 감소로 외형이 쪼그라들었다.

총자산증가율은 1.1%로, 작년 2분기(0.2%)보다 늘었다. 총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되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가 많이 발행되면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3%로, 전년 동기(5.5%)보다 하락했다. 대기업(5.2%→5.1%)과 중소기업(6.8%→6.1%)을 가리지 않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줄었다.

제조업(5.7%→5.3%)이 운송장비(4.4%→1.0%), 금속제품(6.5%→3.6%)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지만, 비제조업(5.2%→5.3%)은 국제 항공화물 운임 상승의 영향을 받은 운수업(4.2%→6.4%)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작년 2분기 5.4%에서 올해 2분기 5.2%로 하락했다. 연합뉴스

## 성착취물 제작 징역 29년3개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정보보호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7년~13년,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년~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형량이다. 연합뉴스

제주에너지공사 광고 제2020-52호

###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도민과 함께 공동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체 만들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제주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1. 공모개요

- 공모명 : 2020년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 참여대상 : 제주도민 누구나 / 개인, 팀 가능
- 공모내용

분야	제안내용
사회적가치 향상	- 사회공헌 사업 제안 - JECO-발전단지 주변지역 '성생양안' 제안
신재생에너지 확산	- 신재생에너지 교육 콘텐츠 제안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시설물/인텔스 제안

\*발의대상 : 가사리, 김녕리, 동복리, 북촌리, 신창리, 행원리

※ 제외대상

- 공사의 경영목표, 사업범위에 벗어나고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 단순 운영·유지·보수·개선 사업 및 현물, 현금 등 단순 지원요구
- 특장지역의 지원요구하거나 특장지역의 프로그램 사업 등 사업의 효과기 특장, 특장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다음연도 예산투입을 전제로 총사업비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
- 공사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
- 기타 단순견의, 민원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 참여방법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제안설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공모신청서 서약서
- ※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jeu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주소: 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1로1길 18-4, 제주에너지공사 신사업기획팀 앞 - 전자우편 : e-mail:IDEA@jeuenergy.or.kr) 우부

3. 직권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항목	평가기준	백점
필요성	· 주민참여사업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여부	20
효과성	· 사업효과가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	20
달성도	·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 여부	20
창의성	· 기존사업과 모방 없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인지 여부	20
지속성	· 유관기관과의 협업 가능성, 도민 동참 가능성	20

○ 시상계획

구분	시상내역	인원	총액
최우수상	상징/상금(500,000원)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우수상	상징/상금(300,000원)	2(분야별 1명)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장려상	상징/상금(200,000원)	4(분야별 2명)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 제안아이디어가 수중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되거나 없을 수 있음(심사시 결정)

4. 공모일정

구분	추진일정
공고	2020. 9. 4. ~ 9. 29.
접수	2020. 9. 7. ~ 9. 29. 18:00 까지
심사발표 시상	2020. 10월 중

5. 기타사항

- 제안내용이 공중 도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는 모든 개인은 제출되어 인과 사유 발생 시 상정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 공모전 제출 아이디어(제안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당선자 전부 또는 일부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상의 기재 허위나 면허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 책임
- 문의처 : 제주에너지공사 신사업기획팀 (☎064-720-7443) ※ 우리 공사 업무시간에 한함(09:00 ~ 18:00)

##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 751-0045

##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항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형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논,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정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064-782-2479 / 010-4736-2479